

# 국가 문화예술지원 정책에 따른 무용공연예술의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이 주 희\*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     | 참고문헌     |
| III. 무용공연예술의 국가지원 사업    | ABSTRACT |
| IV. 국가의 지속적 무용지원체계 구축방안 |          |

## I. 서론

21세기 예술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용공연예술지원은 타 예술 분야보다 현저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느 사회나 예술의 성장 속도와 사회 발전적도는 비례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또한 새로운 예술 장르들이 파생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의 예술장르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재평가하여 이를 육성해 나갈 수 있어야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후세대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예술은 삶의 핵심가치이며 정체성과 행복의 근원이고, 지역과 국가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역할을 한다. 이중 무용공연예술은 예술적 가치 뿐 만 아니라, 심미적·사회적·정치적으로 현 시대에 다양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며 대중들의 생활 속에 공존하고 있다. 무용공연을 향유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높이고, 정서적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무용공연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용공연의 활성화, 질적·양적 확대를 실시하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극복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 문제의 중요 쟁점은 재정적 지원을 들 수 있겠다. 무용공연 작품이 제작되고 그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여건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무용공연에서는 안무가, 무용수, 공연을 올릴 수 있는 대본, 무대, 스텝, 의상, 음악, 조명 등 그 외에 작품에 필요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인력과 요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재원조성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국가의 예술정책이 충족된다면 무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juhee928@hanmail.net

용공연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총 예산은 5조 6,971억 원으로 그 중 문화예술로 편성된 예산은 28.2%인 1조 6,09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3% 증가하였고<sup>1)</sup>, 예술의 산업화 추진을 위해서 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시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시장 수요 창출과 수익모델을 개발, 유통채널의 다각화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계 경영 역량 강화라는 명목아래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포괄적인 의미의 정책으로 무용예술장르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고, 일회적인 지원정책에 그치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하기에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가적 정책시행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뚜렷한 방안들과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의 예술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용예술단체 또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생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방향이 비교적 사회의 가치지향과 맞물려 어느 정도 제도적 측면의 성장을 해왔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실행과 인식의 수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귀결되듯이<sup>2)</sup> 여전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 예술의 사회적 권리 확대,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수평적 구조형태의 문화예술정책 수립기반 마련 등의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용공연예술의 국가지원 정책을 연구하여 예술지원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수립하고, 무용공연예술의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정책 지원시스템은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본 연구의 무용공연지원 사업은 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공공지원인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 범위를 최소화하고, 국가 문화예술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인 무용공연지원체계를 고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는 II장에서는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을 연구하는데 한국 예술정책과 공공예술지원기관 형태, 한국 문화예술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예술지원시스템 구조가 한국과 가장 흡사한 프랑스 공공예술지원과의 비교를 실시한다. III장에서는 무용공연예술의 국가지원 사업을 유형, 현황 및 예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IV장에서는 지속적 무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예술지원정책 수립, 지원 사업 절차 및 심의제도 개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예술지원기관의 혁신을 구축방안으로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해낸다.

본 연구는 국가의 공공지원 중심인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무용예술지원 사업국가 주도적 예술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의 기반이 된 프랑스의 예술지원 체제만을 비교하여 연구한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지원사업의 현황을 중점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본 연구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데 차별성을 둔다. 또, 공연예술 지원 심의 기준 및 평가는 국가의 강요가 아닌, 자율성, 독립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펼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무용예술 분야의 다양한 예술지원정책 시스템을 분석하는 연구자들, 무용예술계의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1) 한국문화체육관광부(2016), 『2017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p.11.

2) 송경년(2017), 지역문화재단 역할의 재구성: 공감·호감·연민 그리고 시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정책을 꿈꾸며, 『문화정책토론회』 자료집, p.18.

## II.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

### 1. 한국 예술정책과 공공예술지원기관 현황

한국 예술정책방향은 예술단체 자생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 예술인들의 창작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예술 창작 환경을 개선해 대중의 문화예술 참여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예술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프랑스의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및 기획의 평등을 기반으로 정착한 정책과 흡사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공립기관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전문문화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을 연계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예술정책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에서는 최근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국가지원 확대의 길을 열어주고, 행정적인 절차와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sup>3)</sup>을 도입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축·관리·운영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업무협약(MOU) 체결에 의한 17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보조금 주관기관 등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속한 정보와 지원신청업무의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며, 보조금 지원행정기관을 위해서 지원행정 업무의 전국 표준화와 지원사업의 통계에 대한 정보공유 환경을 제공한다.<sup>4)</sup>

국가의 공공예술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등이 있고, 이중 13개의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예술지원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각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 ‘아르코(ARKO)’는 예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술 사업으로는 ARKO 지원사업, ARKO 기부금 사업, 공연연습 공간 조성 및 운영,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나눔티켓 사업, 무대기술LAB, 무대예술현장전문가연수,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인증사업, 복권기금문화나눔, 아르코챔프아카데미, 예술기록 아카이브, 예술나무운동, 크라우드펀딩, 통합문화이용권, 평창문화올림픽문화예술 프로그램지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해외예술정보DB<sup>5)</sup> 등의 사업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예술 향유권을 신장시키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예술발전에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설립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창작, 유통, 소비라는 구조의 예술생태계에서 예술유통을 활성화

3) 국가에서 기획 재정부 예산을 계획·집행하여 보조금, 보조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 중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NCAS’이라 하며,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공고, 지원신청, 심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집행내역 등록(정산), 결과보고(정산 및 실적보고서), 평가, 사업종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ncas.or.kr> 2017.12.20.>.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rko.or.kr>, 2017.12.20.>.

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예술을 해외에 진출, 유통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6)</sup> 뿐만 아니라, 예술단체와 예술현장 종사자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예술이 기술과 융합하여 예술작품이 보다 다양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끔 예술작품의 활발한 유통과 예술의 산업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예술현장과 소통하고, 예술 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 예술의 선순환 생태계 기반 조성과 동시에, 예술단체 경영 전문화 지원, 예술시장 정보제공, 공연예술분야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시각예술 대중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주요 전략과제를 내세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은 안정된 예술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술지원체계 구축, 창작 공간 기반 플랫폼 기능 강화, 예술지원 사업 운영의 합리성 제고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예술교육,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인 지원과 창의적인 문화예술 사업으로 미래지향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 한국 문화예술지원 현황

최근 세계 각 분야의 핵심 화두는 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맞춰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예술의 창작 방식과 유통방식 또한 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는 실질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 환경의 조성과 경쟁력을 갖춘 문화예술기반을 강조하는 정책을 실행하고,<sup>7)</sup> 국가의 문화예술지원제도 또한 예술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예술창작기반을 조성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더 나아가 국제교류 및 전략적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확대하여 예술계의 경영역량강화 및 예술의 국제적 산업화를 조성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문화예술 부문에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총 재정지출 규모는 5조 6,97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증가하였으며(2,023억 원), 문화예술 분야는 1조 6,09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3% 증가하였으며,<sup>8)</sup> 그 근거자료는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문화예술 부문 예산편성 규모 (단위: 억 원)

| 구 분     | 2016년 예산 |        |        |        | 2017년 예산 |        | 추경대비  |      | 본예산 대비 |     |
|---------|----------|--------|--------|--------|----------|--------|-------|------|--------|-----|
|         | 본예산(A)   |        | 추경(B)  |        | (C)      |        | (C-B) |      | (C-A)  |     |
| 총지출     | 54,948   | 100.0% | 56,903 | 100.0% | 56,971   | 100.0% | 68    | 0.1% | 2,023  | 3.7 |
| 문화 예술부문 | 15,142   | 27.8%  | 15,242 | 26.8%  | 16,092   | 28.2%  | 850   | 5.6% | 950    | 6.3 |

이 중 국가에서 실시하는 예술사업의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을 중심으로 운용되

6) 권승민(2018), 「머니투데이」, <<http://theleader.mt.co.kr/>, 2018.01.13.>.

7) 박영하(2015), 실용무용의 흐름과 경향 분석, 『한국무용예술학회』 52(1), p.35.

8)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7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개요』, p.11.

고 있으며, 그 운용 방향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민간기부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바탕으로 운용된 최근 2016~2017 계획예산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이 396,936백만 원에서 540,207백만 원으로 143,271백만 원 증액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문화예술진흥기금 2016~2017 예산 편성

(단위: 억 원)

| 구 분    | 2016 계획<br>(A) | 2017 계획<br>(B) | 증감<br>(B-A) | %      |      |
|--------|----------------|----------------|-------------|--------|------|
| 합 계    | 396,936        | 540,207        | 143,271     | 36.1   |      |
| 총지출    | 사업비            | 219,590        | 215,996     | △3,594 | △1.6 |
|        | 기금운영비          | 12,447         | 12,230      | △217   | △1.7 |
| 내부거래   | 2,500          | 2,500          | -           | -      |      |
| 여유자금운용 | 162,399        | 309,481        | 147,082     | 90.6   |      |

운용된 문예기금 중 주요사업 내역은 예술창작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6년에는 총 45,783백만 원에서 2017년 45,383백만 원으로 감액되어 추진되었고, 그 중 예술창작지원 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27,390 → 24,659백만 원(2,731백만 원 감)으로, 예술인력 육성 사업은 12,593 → 14,234백만 원(1,641백만 원 증)으로,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은 5,800 → 6,490백만 원(690백만 원 증)으로 운용되었다. 생활 속 예술 활성화를 목표로 2016년에는 총 92,469백만 원에서 2017년 107,074백만 원으로 14,605백만 원으로 증액되어 추진되었고, 그 중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92,469 → 107,074백만 원(14,605백만 원 증)으로 운용되었다.

또,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목표로 2016년에는 총 50,473백만 원에서 2017년 31,946백만 원으로 18,527백만 원 감액되어 추진되었고, 그 중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4,820 → 7,389백만 원(17,431백만 원 감)으로, 공연예술 활용관광자원화 사업은 25,653 → 24,557백만 원(1,096백만 원 감)으로 운용되었다.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2016년에는 총 30,865백만 원에서 2017년 31,593백만 원으로 728백만 원 증액되어 추진되었고, 그 중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30,865 → 31,593백만 원(728백만 원 증)으로 운용되었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국가의 운용방향설정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어 분야별 문화예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167억 5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지난 3년간 전국에 167억 3500만원의 예산을 137회에 걸쳐 지원되었으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기금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술창작활동 지원은 11,088백만 원에서 11,146백만 원으로 58백만 원 증가 되었고, 그 중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은 24,772백만 원에서 24,911백만 원으로 139백만 원 증액, 창작역량강화는 12,700백만 원에서 12,645백만 원으로 55백만 원 감액, 예술인복지재단 운영은 1,636백만 원에서 1,858백만 원으로 222백만 원으로 증액 되었다.

2017년부터 예술의 산업화 추진을 제시하며 신규 사업으로 1,94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에 1,060백만 원이 순증, 예술상품 유통채널 다각화 지원에 788백만 원 순증, 예술분야 투자 활성화 지원에 100백만 원이 순증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3. 프랑스 공공예술지원과의 비교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 경쟁력 확보와 민족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에 기반 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중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 교육,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며 예술인 복지를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프랑스의 공공예술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프랑스의 문화예술지원은 공정성 및 기회의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조직 현황은 예술창작국과 문화통신부 산하 지원기관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술 창작국(Direction generale de la creationartistique)’은 문화통신부의 음악·연극·무용·공연예술국과 조형예술 특별국이 통합되어 2010년에 만들어졌고, 산하조직으로는 공연과, 조형 예술과, 관객 및 홍보팀, 예술창작 감독관, 재정 및 일반 행정담당, 커뮤니티 담당이 있다.<sup>9)</sup>

프랑스의 예술지원은 프랑스의 문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문화부가 1959년 신설되어 초대 장관인 앙드레 말로(Andre Malraux)가 취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공연과 전시 및 새로운 창작을 촉진시키기 위해 10만 명이상의 모든 도시에 ‘문화의 집(Maisons de la Culture)’이라 명명한 복합 문화공간의 설립을 계획하여 연극, 음악, 무용, 전시, 영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창작활동과 확산 기능을 수행하도록 실시하였다. 이처럼 국가 주도적 정책을 이끌었으나 차츰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었다. 최근에는 주민의 참여와 공간의 활용률이 낮아져 더 이상 신축하지 않고, 기존의 건물을 개축하여 소규모의 문화센터로 방향을 전환시켜, 문화단체나 교육단체들과의 협력 사업에 집중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증점적으로 장려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문화의 집’ 또한 프랑스의 ‘문화의 집’이 원동력이 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나라의 ‘문화의 집’은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지역 주민의 소규모 문화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국가 공익사업 목적과 기업경영 체질의 조화, 전통문화 보존사업의 증추적 거점 기능, 목적사업 경영 활성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sup>10)</sup> 등의 목적을 갖고, 각 지역별로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자국민들에게는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예술지원체제는 한국과 흡사하게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예술가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후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제도적 장치로는 예술분야 별로 각각의 국립 진흥원을 설치하여 집중 지원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강력한 국가중심주의의 예술정책을 펼치고 있다.<sup>11)</sup>

프랑스의 무용예술 지원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사업국(DRAC)을 중심으로 1977년 창설된 이래 현재까

9) 이주희(2017), 『한국 문화예술지원 유형에 따른 무용공연예술의 발전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68.

10) 두산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www.doopedia.co.kr>, 2018.01.13.>.

11) 이주희(2017), p.67.

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무용, 음악, 연극, 조형예술 등 4개 분야별로 예술창작 지원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예술 창작지원 사업 중 파리를 중심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무용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무용분야는 창작, 교육, 유통, 소비, 예술 활동 등 무용예술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매년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용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전문단체의 개발과 대중과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sup>12)</sup>로 설정되어 국립안무센터(CCN), 무용발전센터(CDC) 등 국립기관을 통한 지원, 공연장, 창작 공간, 유통경로, 레지던스, 축제 등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무용작품창작 직접지원, 공연예술전문 교육지원, 고등교육 지원(국립 고등 음악·무용 컨서바토리), 무용교사 국가학위 관리<sup>13)</sup> 등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창작 지원 정책은 체계적인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전공(무용창작, 무용수, 교육자, 공연관계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단위 전문가 위원회가 매해 초 구성되어 전체 지역의 서류를 검토한 후, 각 지역별 지역문화국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세분화시켜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단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각 단체의 연륜에 따라 지원형태를 다르게 하며 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단체운영과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3년 연속지원을 체결하여 예술 단체 레퍼토리의 활성화와 대중들과의 소통을 위해 예술유통과정에 초점을 맞춰 예술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었다.

여느 국가와 같이 프랑스 또한 문화예술을 해외에 홍보하고, 국내적으로는 외국의 주요 문화예술을 프랑스에 소개하는 문화예술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 예술인들의 복지와 창작자들의 기회를 돕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과 흡사하게 문화통신부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자국의 특수성과 우수성에 기초한 문화선진국으로서의 프랑스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오는데 문화예술정책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sup>14)</sup> 왔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생산과 보존에만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져온 산업적 수렴을 통한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에 힘을 쏟고 있었다.

### III. 무용공연예술의 국가지원 사업

#### 1. 무용예술지원 사업유형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용예술지원 사업유형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진행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예기금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성·관리하는 기금으로 운영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인 기금의 재원조성은 모금, 정부출연금, 공익자금, 기부금 등을 통해 만들어지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수수료 중의 일부를 공익자금으로 조성하여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sup>15)</sup> 이

12) 장인주(2016), 문화정책 이념에 따른 프랑스 무용의 발전 양상, 『한국무용예술학회』 58, pp.79-90.

13)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2017.12.05.>.

14) 서정교(2003), 『문화경제학』(서울: 한울출판사), p.243.

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실행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문예기금 공모사업 중 무용분야의 예술지원 사업으로는 창작지원의 대표적인 공모사업인 창작산실이 있다. 이 사업은 <올해의 레퍼토리>, <올해의 신작>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연예술 공통으로 <창작산실 비평지원>, <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구. 공연예술행사지원)>, <공연예술특성화 극장운영지원>,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무용분야의 예술인들도 참여가 가능하다.<sup>16)</sup> 또한 <예술인력 육성지원>사업으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서는 차세대 유망 예술가가 다양한 창작 소재를 개발하고 심층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수준 높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국제예술 교류 지원 사업 중 무용예술 분야가 공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해외 레지던스 참가지원> 사업으로 자율형과 기획형으로 나뉘고, 자율형 사업은 예술인의 해외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기획형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기획·발굴한 우수한 해외 창작거점 기관에 예술가를 파견함으로써 한국 예술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예술가의 창작역량과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예술가들이 참가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예술가 양방향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코 국제레지던스 개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 간의 민족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목적인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중장기 문화예술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사업의 예술성 및 충실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실행되는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사업, 다양한 해외 창작 플랫폼 개발을 통해, 예술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국제교류 성과 확산을 위해 다자간 교류가 가능한 국제교류 플랫폼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공연예술관광자원화 사업 유형에는 전국 각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과 국민의 문화향유 신장에 기여하고,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 대상의 공모를 통해 지역의 특화된 공연예술축제를 지원하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소재로 공연예술 창작 콘텐츠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지원> 사업, 서울아트마켓(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팸스초이스(PAMS Choice)로 선정된 작품의 해외 초청 공연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ARKO-PAMS협력지원(일반공모)>, 서울아트마켓(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이하 PAMS) 팸스초이스(PAMS Choice)로 선정된 작품<sup>17)</sup>의 해외 초청 확대를 위하여 프로모션을 위한 키트(책자, 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ARKO-PAMS협력지원(프로모션키트지원)>사

15)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서울: 박문각), <<http://www.pmg.co.kr>, 2018.01.15.>.

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2017.12.20.>.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2017.12.20.>.



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향유가 어려운 국민을 찾아가 다양한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향유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예술단체의 작품 발표 기회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외계층문화순회지원>이 진행되고, 이 사업은 매칭형, 발굴형, 소규모 순회,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 공모한다.

## 2. 무용공연예술지원 사업현황 및 예산

한국에서 무용공연예술을 위한 국가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공공지원인 문예기금과 국고 보조금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 그리고 국고 보조금 사업은 국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문화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 등을 담당함으로써 정책적인 차원에서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용공연예술행사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전국단위 행사에 대한 국가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단위 행사는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여 국가차원의 공연예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sup>18)</sup>

무용공연예술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전국 규모의 특성화 사업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사업을 살펴 볼 수 있겠다. 이 사업은 무용공연의 장기적 행사로서 예술인들이 무대를 기획하고, 새로운 무용창작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가교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안무가들의 역량을 개발하여 무용공연예술의 체계적인 발전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지난 2016년 무용공연분야 공연예술제 지원분문의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201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무용부문 기금(지원액 순) (단위: 천원)

| 주 최            | 지원 사업                               | 지원 금액   |
|----------------|-------------------------------------|---------|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서울 댄스컬렉션 10주년 기념행사                  | 150,000 |
|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 제25주년 기념 2016 SCF 서울국제 안무 페스티벌      | 50,000  |
|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 제13회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 45,000  |
| 신은주무용단         | 제 7회 2016 부산 국제 춤 마켓                | 45,000  |
| 세계무용연맹한국본부     | 2016 세계무용연맹 아시아 태평양 국제무용총회 in Korea | 40,000  |
| 젊은안무자창작공연운영위원회 | 2016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                    | 30,000  |
| 댄스포럼           | 크리틱스 초이스                            | 30,000  |
| (사)한국현대무용협회    | 2016 제18회 생생 춤 페스티벌                 | 27,000  |
| 21세기 현대무용연구회   | 제 15회 뉴 댄스 페스티벌                     | 27,000  |
| (사)한국무용협회      | 2016 대한민국 무용대상                      | 20,000  |
| 총 계            |                                     | 464,000 |

18) 이문(2017), 『한국과 중국 무용공연예술 정책 분석: 문화예술 공공지원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57.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에 1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등에 추진되는 총 사업비는 4억 6천 4백만 원으로 진행되었다.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운영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도에 있어 전면개편의 계획을 내세워 지원 심의제도 전면 개편과 함께 지원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포함한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제도를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였고,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sup>19)</sup>를 확대해 2018년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되는 국고 수탁사업 및 타 기금사업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 IV. 국가의 지속적 무용지원체계 구축방안

### 1. 예술지원정책 수립

국가의 예술지원정책은 한 나라의 문화예술을 좌지우지한다 할 수 있다. 이는 예술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들이 국가의 예술정책을 토대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한 해의 예술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며 그 흐름에 맞게 시행하기 때문이다.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정책 및 지원만족도 조사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예술 활동에 대한 외부규제(27.6%), 예술인 창작발표기회(12.0%), 예술인의 사회적 평가(9.9%), 예술정책 만족도(6.7%) 등 낮은 비율의 긍정적 의견이 나타났다.<sup>20)</sup> 또, 예술발전을 위한 정부의 예술정책 중 경제적 지원(43.3%), 예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정비(17.7%)등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sup>21)</sup>

이처럼 한 나라의 예술정책은 각 분야별 예술지원 사업의 구체화 및 세분화, 예술 활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향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계획을 합법적인 결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예술정책에는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 부여되며, 정부의 결정이나 방침에 위배되는 행위 시 제재규제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예술정책을 기반으로 예술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예술사업 체제는 전문적이고 경험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다양한 국제심포지엄과 대중들의 예술체험 확대, 문화예술재생 사업추진, 필요시설 보완, 문화예술클러스터 등의 설립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국가는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장기적 계획으로 문화예술 부문을 지원함과 동시에, 표본의 역할이 되어 기업과 민간의 관심을 유도하고, 예술 산업 육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정책의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이 문화의 일상화를 추구하고, 예술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보의 아카이브화를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향상시키고<sup>22)</sup> 동시에 예술 향유에 대응하는 양질의 문화예술 정보자원 수집과 함께 콘텐츠 개발 및 예술 공유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19)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예술단체가 이의신청한 지원심의 과정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여 지원심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상설기구이다.

20)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예술인 실태조사』, p.156.

21) 문화체육관광부(2016), p.171.

22)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정보화백서』(서울: 한국문화정보원), p.150.

또, 형식적인 정책의 변화보다는 실효적인 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는 사회적 기여를 하는 예술에 대해 네트워크 형성, 콘텐츠 개발지원, 예술의 자생력 제고 등을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적 예술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경력단절별 체계적 예술지원 사업 추진, 현장중심의 실효적 예술지원, 창작활성화 지원, 경제여건의 예술인 복지지원, 연금관련 지원, 예술인 후생복지마련 등 보다 실현가능하고, 예술 활동여건에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2. 지원 사업 절차 및 심의제도 개선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지원의 원칙과 방향, 도입취지와 현황을 바탕으로 최근 2018년 사업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획서 공모 및 지원신청접수 - 지원심의 및 지원 대상 선정 - 지원금 지급 관련 협약서 체결 -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 평가결과 환류과 - 사업담당자 최종 승인 - 실적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진행 - 사업 수행<sup>23)</sup>으로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간편화되었지만 모든 예술분야지원 사업추진 절차가 동일했다. 이는 사업별로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상이한 반면 절차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같은 방식을 적용시키는 것은 사업평가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무용예술지원 사업 절차는 통상적으로 서류심사, 공연 프리젠테이션, 공연에 대한 목표와 사업 전략, 제작자의 공연사업에 대한 의지, 시범공연, 인터뷰, 공연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 공연 제작에 참여한 스텝의 역량, 무용수 구성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 해야 할 사항은 1회적인 공연을 위한 평가가 아닌 무용공연예술작품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점검한 후 그 작품이 레퍼토리화되어 꾸준한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한 후 최종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 사업 절차, 평가와 함께 공정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위한 창작지원 심의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 기존 기금지원 제도의 즉각적인 운영 효율성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창작 지원 정책의 제반 환경을 살펴보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지원 대상의 현실이 어떠한지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 먼저 인식되어야 사업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폭 넓게 검토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심의 위원들의 임기를 기존보다 긴 2년으로 책정하여 전문성을 보장하고 책임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소수의 심의위원을 통한 지원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벗어나 공유형 지원심의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제도를 전환해야 하고, 현재 심의제도는 단순히 1등을 뽑는 경연제이라 할 수도 있기에, 이를 창조와 공유를 위한 심의제도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원심의제도는 정책적으로 국가의 비전이 반영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하고, 그 비전이 제시되면 지원사업의 방향과 심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예술작품이 대중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선정하여 문제 발생 시 정확한 문제파악과 책임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홈페이지, <<http://www.arko.or.kr/>, 2017.12.20.>.

현시대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인 지원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외부압력과 청탁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3.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새 예술정책수립 특별 전담팀(TF)의 예술지원 체계분과위원회는 ‘예술지원체계 혁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 예술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예술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sup>24)</sup> 이 결과 예술지원체계의 현실과 혁신 방향제시, 지속적 확대에 따른 예술지원체계 재구성 방향과 예술지원기관의 혁신, 예술지원에서의 예술 현장, 지역 등 다양한 대상과의 협치 체계의 재구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 지원체계의 구조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변화 요구 및 대안, 예술정책 지원 기관의 구조와 특성, 정책성과평가 등을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지향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술지원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예술정책을 수립하고자하는 정책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앞으로의 예술 사업은 일관성 있는 정책 하에 추진하고 대내외적인 효과의 구현을 위한 전략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됨과 동시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현장 예술생태계의 자체적인 주체가 형성되어야 하고, 예술자원의 배분과 공유 중심으로 사업 프로세스의 구조가 재정비 되어야하며 성과와 결과보다는 경과와 과정이 중요시되는 행정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확대된 예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분절된 체계로 된 시스템을 예술정책협력 네트워크를 설치운영하여,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쏟고, 더 나아가 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시켜 분권형 예술지원체계로의 개편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문화예술지원은 예술정책의 목표가 모호할 경우 즉각적이며 단기 중심의 정책설계를 하게 되고 전체적인 정책 틀이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나열식 사업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sup>25)</sup> 따라서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예술현장을 고려한 지원 사업설계와 구조 조정 등의 부단한 과정 속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 무용분야별 특성에 기반 한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문화예술재원 확보’라는 새로운 정부의 두 가지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한다.

### 4. 예술지원기관의 혁신

국가는 예술정책에 대한 행정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탁상론적인 형식을 탈피시켜 현장성이 중시되는 예술지원정책으로 탈바꿈하고, 원론적인 형태가 아닌 현 시대의 예술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한 핵심요소다.

24) 장병호(2017),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 2017.12.16.>.

25) 박치성, 정창호, 백두산(2017), 문화예술지원체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학회』 26, p.272.

국가의 예술지원이라 하더라도 담당하는 부서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과 문화재단, 민간단체 사이의 역할 분담이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변화를 바라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의하며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수평적 분업형태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나 문화재단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보다는 예술가, 시민, 민간단체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그들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권한의 중심을 점점 그들에게 이동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sup>26)</sup> 그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문화예술행정기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예술의 정체성과 국민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된다.

각 문화예술 기관들은 분야별·영역별 목적과 역할에 따른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는 이들 기관들의 정보들을 연계하고 융합하는 방식으로 각 문화예술 기관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연계방법 및 소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과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체부에서는 정부3.0 정책을 활용하여 각 예술기관에서 구축한 정보를 개방하여 좋은 정보는 이용자가 재할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sup>27)</sup>

국가의 정책적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예술지원기관들은 국가의 특성에 맞는 예술 사업을 엄선하여 집중 지원하고, 선정건수 및 건당 지원액을 확대하여 사업체계를 구축, 대내적 및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예술단체를 육성지원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와 연계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예술기관과의 적극적인 체결을 통하여 해외 거점지역에 경쟁력 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을 홍보하여 국제적 협력네트워크 형성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 시대에 문화예술의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근거를 제기함에 따라 국가는 문화예술의 필요가치를 인식하고, 새로운 예술형식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예술지원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는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또한 필요가치를 입증함과 동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이 확대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 V. 결론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을 21세기 예술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그만큼 예술은 인간의 삶 속에 공존하며 영역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술은 국가의 전략적 재원으로 창조산업 등 다양한 경제적 창출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위상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사회공동체 결속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예술을 기반으로 무용공연예술 또한 그 역할을 함께 공유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국가의 예술지원정책 아래 예술현장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국가지원의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의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26) 유진룡(2017), 새 정부와 새 시대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정책 토론회』 자료집 발제, p.14.

27)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문화정보화백서』(서울: 한국문화정보원), p.151.

에 대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예술사업 체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 실효적인 예술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1회적인 공연을 위한 절차, 심의, 평가가 아닌 공연예술작품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공정성, 다양성, 전문성의 심의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예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술지원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무용분야별 특성에 기반 한 지속적 예술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예술현장을 고려한 지원 사업설계, 구조 조정 등의 문제근원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넷째, 무용공연예술은 분야별·영역별 목적과 역할에 따른 전문성과 특수성, 무용공연예술지원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연계방법 및 소통 방식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의 혁신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지원의 국가 정책의 예술지원체계는 기초예술지원과 문화향유 간의 연계기능을 확대하고, 기초 예술과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예술계의 현 상황들을 직시하고, 사회적 변화와 환경을 반영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7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문화정보화백서』. 한국문화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5 예술인 실태조사』.
- 서정교(2003). 『문화경제학』. 서울: 한울출판사.
- 이문(2017). 『한국과 중국 무용공연예술 정책 분석: 문화예술 공공지원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주희(2017). 『한국 문화예술지원 유형에 따른 무용공연예술의 발전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치성, 정창호, 백두산(2017). 문화예술지원체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학회』, 26.
- 박영하(2015). 실용무용의 흐름과 경향 분석. 『한국무용예술학회』, 52.
- 배관표, 김태연(2017). 규제를 통한 공공미술 지원제도의 문제와 과제: 한국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사례 분석. 『문화정책논총』, 31.
- 유진룡(2017). 새 정부와 새 시대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정책 토론회』 자료집 발제.
- 장인주(2016). 문화정책이념에 따른 프랑스 무용의 발전양상. 『한국무용예술학회』, 58.
- 채경진(2016). 공공기금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0.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서울: 박문각. <<http://www.pmg.co.kr>, 2018.01.15>.
- 장병호(2017).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 2017.12.16>.
- 편승민(2018). 『머니투데이』. <<http://theleader.mt.co.kr/>, 2018.01.13.>.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s://www.ncas.or.kr/>, 2017.12.20>.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ggcf.kr/>, 2018.01.13>.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 2018.01.13>.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okams.or.kr/>, 2017.12.2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rko.or.kr/>, 2017.12.20>.
-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2017.12.05>.

논문투고일 2018. 2. 12

심사일 2018. 2. 20

심사완료일 2018. 3. 29

## **A Plan for Establishing a Sustainable Support System for the Art of Dance according to National Culture and Arts Support Policy**

**Lee, Ju Hee**  
Hanyang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of arts, the art of dance should be recognized as having infinite value in professionalism and as an artistic field and it requires a sustainable support system that can guarantee autonomy and independence.

This study researched the measures to establish a sustainable support system based on National Culture and Arts Support policy to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a legitimate and systematic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established to deliberate the long-term growth potential of the works of performing arts, not evaluations for one-time performances, and a system of fairness, diversity, and expertise should be established.

Third, a long-term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each field's characteristics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fields.

Fourth, arts support institutions should promote innovation through communication regarding professionalism and specialty of each field.

**Keywords:** Culture and Arts Support policy(문화예술지원정책), Art of dance(무용공연예술), Sustainable Support System(지속적 지원체계), Arts support institution(예술지원기관), Culture& Arts Promotion Fund(문예진흥기금)